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과 전북의 대응: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전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Contents

1.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2.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전복 포함 당위성
3.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전복권 개발구상
4. 정책 제언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진

이 동 기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정 명 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 상 엽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C O N T E N T S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과 전북의 대응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전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 I.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 1) 국민대통합전략 : 섬진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상생발전 4
 - 2)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내용과 한계 4
- II.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전북 포함 당위성
 - 1)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전북 포함 공간 범위의 재설정 필요 6
 - 2) 역사 및 관련 계획을 통해 본 전북 포함 당위성 6
- III.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전북권 개발구상
 - 1) 섬진강 동서통합지대의 개발 기본방향 10
 - 2)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전북권 개발구상 11
- IV. 정책 제언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3년 4월 8일 vol.104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 김경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췌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과 전북의 대응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전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요 약

- 새정부의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에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섬진강 주변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여 영·호남 간 산업육성과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동서회합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전남 동부지역과 경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구상
- 국토교통부는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간범위 설정 및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
- 그러나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발원하여 전북 남동부, 전남 북동부, 경남 남동부 등을 아우르고 있고, 섬진강 유역의 43.5%를 전북 지역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섬진강 발원지인 전북 지역을 제외하고 전남과 경남 지역만을 중심으로 추진
- 또한, 내용적으로도 기존의 미 추진된 남해안 선벨트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명칭만 변경되어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사업의 상징성에 배치됨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이 남해안권 개발사업의 연장이 아니라 동서회합의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는 상징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이 포함된 발전비전 및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
- 그동안 전북은 섬진강의 발원지로서 최초의 다목적댐 건설을 위해 임실 및 정읍의 2개 군, 5개 면, 28개 리가 수몰되어 오늘날의 섬진강 유역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온 지역임. 또한 섬진강 최초의 동서통합 프로젝트인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사업(2006년) 제안 및 3개 자치단체(전북, 전남, 경남)가 참여하는 지리산관광개발사업 추진 등 동서회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해오고 있음
- 따라서 섬진강 동서통합지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북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대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경제통합과 동서회합의 신성장 거점지역 및 국가의 문화 발전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북권, 전남권, 경남권 등을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섬진강 삼각벨트를 조성하고 섬진강 상류를 창조적 힐링휴양문화지대로 조성하며 동서회합을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섬진강 동서회합지대 조성 사업에 전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섬진강 유역 지자체 등과 공조·대응하며 전북, 전남, 경남 및 섬진강 인근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협의회의 구성 등을 통해 공동협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통합지대조성이 실현되어야 함



1. 국민대통합 국정과제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1) 국민대통합 전략 : 섬진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상생 발전

■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국정 과제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 새정부 국정과제인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세부과제 중 섬진강 동서통합지대가 포함되어 있음.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동서통합을 위한 수평적·지역적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은 지역간 국민대통합의 상징사업으로 추진 예정

2)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내용과 한계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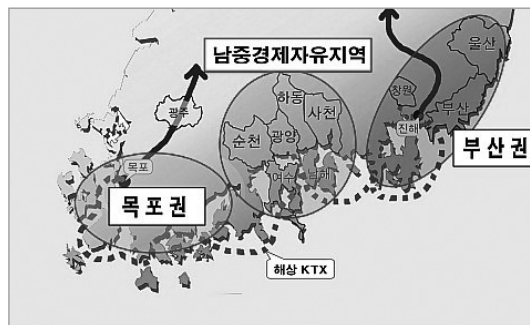
- 섬진강 주변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여 영·호남간 산업육성과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섬진강의 지류인 경남 서부지역(진주, 사천, 남해, 하동)과 전남 동부지역(여수, 순천, 광양) 일대를 중심으로 구상한다는 내용
- 현재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구체화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예정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동향〉

- 국토교통부에서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추진 방향 논의(2013.3.12)
- 국토교통부에서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 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 상태
 - 과업내용 : 동서통합지대 조성과 남해안권 개발과의 관계설정,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동서통합의 의미, 대상지역 설정, 발전방향 마련, 사업 발굴, 제도개선 등)
 -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이 전남과 경남 중심의 공간범위 설정은 적정하지 않으며, 섬진강 발원지인 전북을 포함하여 진정한 동서통합의 상징 사업으로서 성공하도록 공간범위 조정 필요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관련 계획의 한계

- 새정부에서 표방한 지역간 화합을 위한 중요성과 사업의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근본적 한계 내재
-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의 범위와 기본구상을 보면 기존에 추진해 온 ‘남해안 선벨트사업’ 과 상당히 유사한 상태로, 명칭만 변경하여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새정부의 국정철학인 ‘지역간 화합’ 및 국민대통합과 적합하지 않음
 - 2020년까지 24조 3,900억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상징축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남해안 선벨트 조성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명칭만 변경 즉, 남해안 선벨트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기 승인·고시되어 효력을 가진 계획으로 국가계획상 중복
 - 연구용역을 통해 ‘동서통합지대’ 조성의 최적 지역범위를 설정할 것으로 계획 하고 있으나, 기존 선벨트에 포함된 **전남과 경남만을 대상지로 한정할 경우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의 상징성에 배치**



남해안 선벨트(SUNBELT) 거점 구상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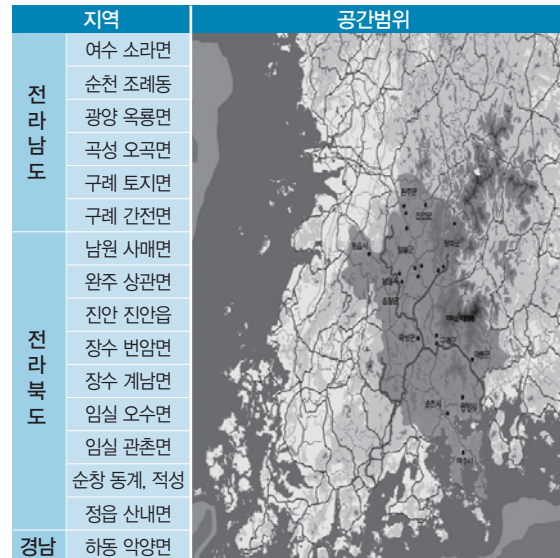
- 동서통합지대 조성과 관련하여 전남도는 영호남간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한 한려대교 추진을 주요 과제로, 경남도는 사천 항공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밀양 나노국가산단 조성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선벨트 사업의 정책기조를 지속시킬 계획
 - 사천 항공산단, 거제 하동 해양플랜트 산단, 밀양 나노산단,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 등의 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 언론의 노력이 가시화
 - 영호남 문화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동서통합문화예술지대 조성 및 정신적 유대강화를 위한 테마로드 등 연계 관광기반 확충사업 포함
- 동서통합지대 조성이 단순히 남해안권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동서화합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는 상징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이 포함된 발전비전 및 미래상 설정과 이를 실현할 사업계획 구상 등이 필요**

1) 국민일보(2013.2.25)

2.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전북 포함 당위성

1)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전북 포함 공간 범위의 재설정 필요

-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계획된 국정과제는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섬진강 발원지인 전북 지역을 제외한 경남과 전남의 기존 사업의 재구성 형태로 계획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대통합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 보기 어려움
- 동서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되살리기 위해서는 동서통합의 상징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섬진강 상류지역인 전북지역까지 공간적 영역을 확대하여 계획을 수립해야함
-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에서 발원하여 전북 남동부와 전남 북동부, 경남 남동부 등 3개도 13개 시군을 아우르며, 영남과 호남의 경계를 지나고 있어 동서통합의 통로로 중요한 가치를 지님. 섬진강은 유역의 89%(전북 43.5%)가 호남지역에 속해 있어 호남지역의 내륙과 해양자원을 연계하는 중요 통로라는 점에서 전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역사 및 관련 계획을 통해 본 전북 포함 당위성

- 전북은 섬진강의 발원지이며, 최초의 다목적댐(섬진강댐) 건설로 동서통합을 위해 노력한 지역
 -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에서 발원하여 남해의 광양만으로 유입되는 강으로 길이 213km, 유역면적 4,895.5km²로 우리나라 네 번째로 큰 강임
 - 또한 전라북도는 섬진강의 맑은 물을 저장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임실군 강진면 및 정읍군 산내면에 중간에 입지하고 있음(1965년 12월 준공). 섬진강댐을 건설하기 위해 전라북도 임실 및 정읍군의 2개 군, 5개 면, 28개 리의 총면적 92.94km²가 수몰되어 오늘날 섬진강 인근 지역인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는데 기여하였음

- 따라서 오늘날 섬진강 인근 지역의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고, 문화 및 예술 등이 발달된 것은 섬진강의 발원지인 전라북도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화합지대 조성 사업은 전북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 섬진강 최초의 동서통합 프로젝트,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 전라북도는 2006년 섬진강을 대상으로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이라는 최초의 동서화합 섬진강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문화관광부에 제안하였음

※ 추진과정

- 2005년 전라북도 섬진강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 제안(전라북도)
- 전북발전연구원 정책연구(2006.3)
- 문화관광부 사전타당성 용역 실시(2006.11)

- 당시 전남, 경남 인접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부족 및 공동연계사업 발굴 미흡과 상호 협력 대응체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 미추진, 이후에 4대강에 대한 관심 확대로 국토해양부(2010)의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문화체육관광부(2011)의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 등으로 연계됨

〈표〉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 개요

지역	사업내용
전라북도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조성, 혼불 배경지 조성, 마이산 영화마을 조성 가상전투·병영 체험장 조성, 영화·드라마관련 소품 전시관 건립 도깨비 진치마을 조성, 오수찰방역지구 영상테마기반조성사업 영상문 화체험관 건립, 진메영화마을 조성, 장군목~향기간 수변영상 촬영지 조성 옥정호 자생식물원 영상촬영장 조성
전라남도	영상특수촬영타운 조성, 세계생 활문화 오픈세트 촬영단지 조성 기차영화 촬영촌 조성, 지리산 빨치산 활동무대지 현장복원 지리산 · 섬진강 로케이션 데이터 자료관
경상남도	토지문 학배경지 민속영상촌 조성

■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동서통합의 선도모델

- 지리산권의 자연, 생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리산을 포함한 동· 서지역의 새로운 활력과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선도모델로 추진하고 있음

- 전북, 전남, 경남 3개 지역의 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전북(남원, 장수), 전남(구례, 곡성), 경남(하동, 산청, 함양)** 등이 해당 지역임
-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7개 시군의 공동 관광자원 개발 및 공동 관광마케팅 등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동반발전을 지향하는 수범적인 광역발전모델로 발전 중
 - 사업내용은 관광개발사업 16개,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 10개 등 총 투자비 2,860억원 규모로, 남원시(41,964백만원), 장수군(35,662백만원), 구례군(27,872백만원), 곡성군(23,758백만원), 함양군(27,602백만원), 산청군(27,326백만원), 하동군(38,832백만원) 등에서 균형적 사업추진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등 별도의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갈등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지리산권의 공동 개발을 위해 지리산권 3개 도(전북, 전남, 경남), 7개 시군(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중심으로 지리산권 자치단체장협의회를 결성하고, 시군간의 공동연계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기구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고(16개 주요사업 10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 각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파견 근무 중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운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 감독),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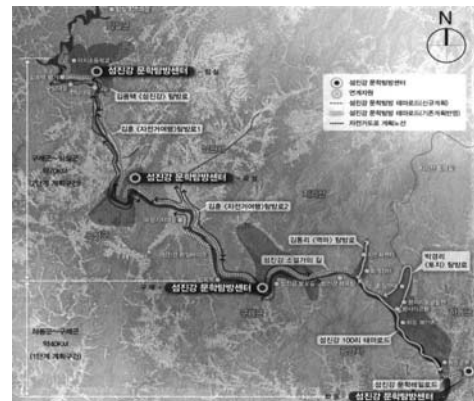
■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1), 최초의 국가단위 섬진강 계획

-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은 강을 중심으로 국토의 新문화관광 환경조성 및 협력과 연계를 통한 강 중심의 광역형 관광개발계획임
- 국가단위의 문화관광개발계획으로 섬진강에 대한 최초의 계획으로 섬진강의 공간적 범위설정과 함께, 연계협력형 사업 발굴에 의미가 있으며 사업의 실행력 필요
-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은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계하여 강을 축으로 지역, 사람, 자연의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상의 **섬진강 권역 범위를 3개도 7개 시군을 공간범위로 설정**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전남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경남 하동군)
 - 역사적으로 볼 때 섬진강은 가야·마한문화, 백제·신라문화, 영남·호남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공유해 왔으며, 우리나라 동서지역 문화특성을 함께 보유한 문화복합지대로 평가
- 섬진강 문화관광계획으로 섬진강 문화탐방테마로드 조성 사업,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조성 계획이 포함

구분	특화사업	선도사업
사업명	섬진강 문학탐방 테마로드 조성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사업연도	2013~2015 (5,000백만원)	2012~2015 (10,960백만원)
사업내용	섬진강 500리의 4개 지역(하동, 구례, 곡성, 임실)을 연계한 문학·문인 테마로드 조성	소리를 테마로 교육과 재미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상황	- 1단계 계획구간(하동~구례) 40km - 2단계 계획구간 구례~임실 약 70km	국가예산확보로 남원시 추진중



〈섬진강 선도사업 구성안〉



〈섬진강 테마로드 구성안〉

■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화합지대 조성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은 6개 광역도(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
- 백두대간 발전 종합계획의 비전은 자연·사람·문화가 어우러진 창조지대 육성임. 전략은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복원 및 현명한 이용, 자연유산과 문화를 결합한 관광지대 구축, 청정 웰빙 고부가가치 식품·약초 클러스터 조성,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간 연계 강화 등
- 백두대간의 3대 화합지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북부남부화합지대 조성(설악산, 오대산권+소백산권), 중부동서화합지대 조성(월악산, 속리산권), 남부동서화합지대 조성(덕유산, 지리산권) 등임. 남부동서화합지대 조성 사업에 섬진강 유역 개발이 포함되어 있음

비전 자연·사람·문화가 어우러진 창조지대 육성

목표 국토의 중심 생태축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
백두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리적 한계 극복
녹색자원을 이용한 신산업지대 구축 및 녹색거점 육성

전략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 복원 및 현명한 이용
자연유산과 문화를 결합한 관광지대 구축
청정 웰빙 고부가가치 식품, 약초 클러스터 조성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간 연계 강화

3.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전북권 개발 구상

1) 섬진강 동서통합지대의 개발 기본방향

■ 섬진강을 경제통합과 동서화합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은 영·호남 접경을 이루고 있는 섬진강의 발원지인 전북지역을 포함하여 상생 발전 및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모델로 구상되어야 함
- 섬진강 유역의 3개 자치단체(전북, 전남, 경남)를 중심으로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여 3개 도의 균형적인 산업육성과 문화교류, 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연계 교통망의 확충 등을 실현하여 경제통합과 동서화합의 새로운 성장 거점 지역으로 육성 필요

■ 국민대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

- 섬진강 유역 지역은 인구 감소율 및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으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 낙후도 순위가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대부분 지역이 낙후지역으로 국민대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의 선도 지역 육성에 적합한 지역임
- 특히, 전라북도는 역대 정부에서 동서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리산권 관광개발, 백두대간권 개발 등의 계획범위에 포함된 바 있으며, 그 추진실적이 미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지역
 - 전라북도는 지리적·정치적 입지여건으로 그동안 국토발전 계획수립에서 중심에 서지 못하고 주도 보다는 참여수준의 위치에 있어 왔음
 - 재정자립도 및 지역낙후도를 감안하더라도 전라북도는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중심지역으로 고려 필요

※ 지역 낙후도 순위에서도 섬진강 유역의 시군 중 장수(166위), 임실(156위), 순창(153위), 진안(150위), 남원(130위)로 전북 지역 대부분이 낙후지역으로 균형발전이 필요한 상태임

〈표〉 전북·전남·경남 섬진강유역 시·군별 지역낙후도순위(전체 170시·군)

지역	전북					전남				경남
	남원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구례군	곡성군	광양시	회순군	하동군
순위	132	150	156	153	166	158	144	39	72	143

■ “섬진강 문화”를 국가 문화축의 하나로 육성

- 섬진강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및 예술 작품 등이 만들어 지고 부흥하는 지리적 매개지로서 문화 및 예술 창작의 중요 지역. 따라서 국가문화 발전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섬진강은 삼국시대부터 군사적·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 조선후기의 농민항쟁, 동학농민혁명, 빨치산 투쟁 등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식생활문화의 발달, 판소리와 농악이 생생하게 보전·전승되는 지역임

〈표〉 섬진강 유역의 시대별 내용

구분	내용
삼국시대	-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역으로서 양국간의 영토싸움이 치열
고려시대	- 해로를 통한 왜구의 잦은 침략
조선시대	- 국가의 중흥기지인 호남지방의 보전여부가 섬진강 연안지역에 달려 있었을 정도로 전략상의 중요성을 지님 - 조선후기에는 진안, 장수, 남원, 임실 등 섬진강 유역의 모든 군현에서 농민항쟁이 발생
근대	- 분단으로 인한 격심한 좌우갈등이 있었고, 섬진강 유역 일대가 빨치산 투쟁의 중요거점

자료 : 문화관광부(2011),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

2)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전북권 개발구상

■ 3개 자치단체(전북, 전남, 경남)가 함께하는 「섬진강 삼각벨트」조성(안)

- 섬진강 상류인 전라북도 지역을 동서통합지대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을 섬진강 동서통합지대의 삼각벨트로 조성하여 산업, 문화, 주거, R&D 등이 융복합 되는 신성장 거점도시로 육성
 - 전북지역인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을 중심으로 섬진강 힐링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정읍은 방사선 R&D 및 방사선 안전 기반 구축 등 국가 방사선 산업 벨트로 육성
 - 여수, 순천, 광양 등을 해양레저산업벨트로 육성하고, 하동, 진주 등을 중심으로 주거 및 교육거점 지역으로 육성



〈그림〉 동서통합지대 삼각벨트 조성 권역별 구상(안)

■ **섬진강 상류를 창조적 힐링휴양문화지대의 거점 지역으로 조성**

- 섬진강 유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생태자원 등이 조화를 이룬 힐링휴양문화지대로 육성
 - 국립 섬진강 생물자원관, 섬진강 자연치유단지 조성, 섬진강 산악레포츠 벨트 조성, 섬진강 소리 문화벨트 조성, 섬진강 물브랜드 세계화, 섬진강 테마길 조성, 섬진강 특성화 마을 거점 조성 및 특성화 마을 조성 등을 통해 섬진강을 동서통합의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육성
 - 전북 남원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백두대간 생태체험장이 2014년까지 400억원(국비 200억, 지방비 200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백두대간 테마로드, 산악모험원, 숲속휴양원 등 체험휴양시설, 야생 동·식물 전시관 등 국내 최초의 4계절 테마파크형 생태문화전시관이 건립될 계획으로 섬진강과 연계사업 추진이 가능



〈그림〉 백두대간 생태체험장 조감도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의 조성 및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한 SOC 확충

-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광역적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섬진강 유역의 SOC를 확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섬진강 통합지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전북 서부지역의 경우 “서해안 관광벨트”와 새만금지구의 건설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도로건설을 통하여 관광지간의 연계성이 향상되고 있음
- 반면 전북 동부지역은 섬진강 유역의 다양한 역사적·문화적·자연적 관광자원의 보유에도 관광지간 연계성이 모호함. 섬진강 유역의 개발과 섬진강 유역의 관광지간의 교통연계사업으로 전라북도만의 관광벨트를 형성하고 활성화 해야 함
- 섬진강 유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자연관광지와 역사문화 등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을 계획 중에 있음. 지역특성과 자연경관을 이용한 총 4개 관광권역 16개의 개별관광지를 계획 중

〈표〉 섬진강 유역 관광지 개발 현황

구분	관광권역	관광지명	위치
1	산악체험 휴양관광권	무주 부남 사계절 레포츠 벨트	무주군 부남면 일원
		논개사당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마이산	진안군 마령면 일원
		장수국제승마장	장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	전통 문화 예술관광권	춘향테마파크	남원시 어현동
		지리산 국립공원	남원시 산내면 일대
		국립자연사박물관	남원시 일대
		강천산 국립공원	순창군 팔덕면
3	역사문화관광권	전북익산 미륵사지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죽림온천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왕궁리 유적지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보석테마파크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4	서해안 해양체험 관광권	변산반도 국립공원	부안군 변산면 보안면, 상서면, 진서면, 하서면
		내장산 국립공원	정읍시 내장동, 장성군 북하면
		고창고인돌군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도산리 일대
		석정온천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광역권 개발전략을 위한 전라북도 통합문화권 설정」, 2011

- 해당 구역은 서해안 및 남해안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내륙 관광권역으로 각 지역간 관광지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특화발전의 증추적 역할을 수행
-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섬진강 유역 관광지간의 연계와 동서화합 등 지역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SOC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국도 19호선 장수~장계 국도 확포장 사업, 장수~변암 우회도로 신설, 백두대간 관광철도, 지리산 관광철도 등 SOC 확충

〈표〉 섬진강 유역 개발 지원을 위한 SOC 사업 예시

구분	사업명	구간	연장(km)	비고
1	국도 19호선 장수~장계 국도 확포장 사업	장수군 장수읍 ~장계면 장계리	8.0	지역 및 관광지 간 연계강화
2	장수~변암 우회도로 신설	남원시 산동면 ~장수군 변암면	7.2	
3	백두대간 관광철도	남원시~무주군	83.5	전라, 충청내륙간 연계강화
4	지리산 관광철도	남원시~진주시	88.2	경상, 전라, 충청도간 연계 및 관광 활성화 지원
5	한려대교 건설 사업	여수시 낙포동 ~남해군 서면	15.1	전남-경남 연계 강화
6	광양만순환 경전철 건설 사업	광양~하동~남해~여수	140.0	
7	남해안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	목포~부산	345.9	



4. 정책제언

1)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전북지역 확대 추진을 위한 대응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에 섬진강의 발원지이자 상류인 전북지역까지 포함하는 초광역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 지역의 섬진강 유역 지자체 및 정치권과 공조를 통한 적극적 대응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전북 지역 확대 추진을 위해 섬진강 인근 시군 및 정치권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북지역이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연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
- 국토교통부(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최적의 대상지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북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추진

- 국정목표인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섬진강 유역에 있는 중앙정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시군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섬진강 동서통합지대의 공동개발 방향 및 전략 등을 추진하도록 해야 함
-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은 3개 도 및 시군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사업 전담조직 및 개발기구의 설립
- (사례) 동·서·남해권 또는 내륙권 발전 공동협의회 및 발전기획단 구성·운영
 - 공동협의회 구성 관련 근거 : 동·서·남해권 또는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2조에 의해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안권별로 해안권 발전 공동협의회, 내륙권별로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를 각각 둬. 주요내용은 주요 정책개발, 공공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임
 - 발전기획단 구성 관련 근거 : 동·서·남해권 또는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조에 의해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기획단을 둬. 발전기획단은 정책 및 제도 입안 기획,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주팔죽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